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

개표결과 예측과 유권자 선택요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본부

한국리서치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사 3개사가 함께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 위원회(KEP·Korea Election Pool)가 선정한 조사회사의 일원으로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출구조사에 참여하였다.

출구조사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원 3200명, 조사감독관 250명이 참가하여 전국 640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리서치는 238개 투표소에 감독관 135명, 조장 238명, 면접원 1,061명 등 모두 1,434명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조장과 감독관은 전원 한국리서치의 연구원과 전문면접원으로 배치하였다.

출구조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17개 광역시도의 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그리고 12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특히 경남지사 선거의 경우 출구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였으나 개표방송 초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중간 집계에서 앞서기도 하였지만 결국 최종 개표결과는 김경수 후보가 1위로 당선되어 출구조사의 예측이 정확하였음이 입증되었다.

심층출구조사의 조사방법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개표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각종 정치적 이슈가 투표자의 선택에 주는 영향을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한 심층출구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출구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출한 66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매25번째 투표자를 등간격으로 선정한 3,403명을 대상으로 태블릿 PC(TAPI)를 이용한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출구조사의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2%포인트이다.

[표 1]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예측결과(시도지사)

지역	정당	후보	출구조사 예측(%)	최종 개표(%)	차이 (예측-개표)
서울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55.9	52.8	3.1
부산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58.6	55.2	3.4
대구	자유한국당	권영진	52.2	53.7	-1.5
인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59.3	57.7	1.6
광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83.6	84.1	-0.5
대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60.0	56.4	3.6
울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55.3	52.9	2.4
세종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72.2	71.3	0.9
경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59.3	56.4	2.9
강원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66.6	64.7	1.9
충북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65.4	61.2	4.2
충남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63.7	62.6	1.1
전북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75.0	70.6	4.4
전남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82.0	77.1	4.9
경북	자유한국당	이철우	54.9	52.1	2.8
경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56.8	52.8	4.0
제주	무소속	원희룡	50.3	51.7	-1.4

[표 2]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예측결과(교육감)

지역	후보	출구조사 예측(%)	최종 개표(%)	차이 (예측-개표)
서울	조희연	47.2	46.6	0.6
부산	김석준	49.0	47.8	1.2
대구	강은희	39.8	40.7	-0.9
인천	도성훈	43.7	43.8	-0.1
광주	장휘국	35.4	38.0	-2.6
대전	설동호	51.6	53.0	-1.4
울산	노옥희	36.7	35.6	1.1
세종	최교진	52.7	50.1	2.6
경기	이재정	40.4	40.8	-0.4
강원	민병희	55.0	54.1	0.9
충북	김병우	57.9	57.1	0.8
충남	김지철	42.4	44.1	-1.7
전북	김승환	40.5	40.1	0.4
전남	장석웅	40.1	38.4	1.7
경북	임종식	30.9	28.2	2.7
경남	박종훈	48.8	48.4	0.4
제주	이석문	52.6	51.2	1.4

[표 3] 6.13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예측결과 (국회의원)

지역	정당	후보	출구조사 예측(%)	최종 개표(%)	차이 (예측-개표)
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60.9	56.4	4.5
서울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57.2	54.4	2.8
부산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54.4	50.2	4.2
인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65.9	61.6	4.3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85.1	83.5	1.6
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현	52.2	48.5	3.7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47.6	47.7	-0.1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56.8	57.8	-1.0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65.9	62.2	3.7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72.4	68.0	4.4
김천시	자유한국당	송인석	55.1	50.3	4.8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68.5	63.0	5.5

어떤 요인이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나:

후보요인, 정당요인, 정책요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40.4%)이었고 후보자의 인물 요인(28.9%)이나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26.1%)의 영향은 정당요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후보의 소속정당이 투표한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바른미래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정책, 인물, 정당요인을 비교적 균등하게 고려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민주평화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후보가 소속한 정당보다는 정책요인과 인물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더 많이 준 것으로 집계된다.

[표 4]투표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BASE:전체 응답자		사례수	후보의 인물	후보의 소속 정당	후보의 공약 이나 정책	기타	모르겠다
☑전체		3,403	28.9	40.4	26.1	2.1	2.5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1,905	27.4	47.1	22.4	1.4	1.6
지지후보	자유한국당 후보	835	31.8	38.6	25.2	2.5	1.9
	바른미래당 후보	199	30.9	27.0	34.3	2.6	5.1
	민주평화당 후보	49	39.8	12.6	44.6	2.9	0.0
	정의당 후보	55	24.6	40.6	31.0	3.8	0.0
	기타 후보	64	49.0	5.7	42.1	3.1	0.0

지방선거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인식

후보선택에서 정당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저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이번 선거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여당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와 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간에 커다란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95.6%가 긍정평가를 하는 반면 부정평가의 비율은 불과 3.3%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의 비율이 49.8%에 그치고 부정평가의 비율은 41.5%로 집계된다.

여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와 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도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85.8%로 압도적 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62.3%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하고 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요인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에 근접하는 64.2%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수준인 25.8%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5] 지방선거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인식					
BASE:전체 응답자		사례수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모르겠다
☑전체		3,403	64.2	25.8	10.0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1,905	85.8	7.9	6.4
지시후보	자유한국당 후보	835	29.1	62.3	8.6
	바른미래당 후보	199	35.5	53.6	10.8
	민주평화당 후보	49	64.2	29.4	6.4
	정의당 후보	55	63.9	20.8	15.3
	기타 후보	64	46.1	32.9	21.0

경제정책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나?

전체 유권자의 73.4%가 투표한 후보를 선택할 때 정부의 경제정책을 고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한 비율은 여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75.4%)와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 간에 모두 70% 중반대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이슈는 세금 부담과 복지의 수준에 대한 의견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경우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8%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 중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25.7%에 지나지 않고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8.5%이며 오히려 '내가 내는 세금을 줄이고 현재보다 복지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도 21.7%로 집계되어 대조적이다.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4.7% 대 40.5%로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된다.

[표 6] 세금과 복지 수준에 관한 의견						
BASE:전체 응답자		사례수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내가 내는 세금을 줄이고 현재보다 복지수준을 낮춰야 한다	모르겠다
☒전체		3,403	44.7	40.5	10.6	4.3
시도지사 지지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1,905	54.8	36.5	6.0	2.7
	자유한국당 후보	835	25.7	48.5	21.7	4.1
	바른미래당 후보	199	38.2	43.0	13.7	5.1
	민주평화당 후보	49	29.1	51.2	19.6	0.0
	정의당 후보	55	56.7	34.6	6.6	2.2
	기타 후보	64	57.5	37.0	4.2	1.3

6.13 지방선거의 승부에 영향을 준 요인: 종합

심층출구조사를 통해 본 6.13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하고 야당이 참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권자의 다수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유권자 선택의 두 번째 요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에 비해 세금을 올리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높다.

심층출구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정당에 대한 인식,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대다수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이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여당의 압승, 야당의 패배로 나타난 가장 큰 이유이다. 

6.13 지방선거의 출구조사에 대한 문의는 여론조사 사업본부의 김춘석 상무 또는 신성현 수석부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014-0087 메일: shshin@hrc.co.kr)